

Sacrifice and Service

희생과 섬김

성경 본문	마가복음 10:35~45
요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45절)
찬송	212장(통 347,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이과의 목표	영적 성장을 위해 우리 이웃을 섬기는 삶이 왜 필수적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살기로 결단한다.



I. 생각하기

1. 섬김의 보편적인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 영적성장을 위해 ‘섬김’이 왜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까?



II. 생각 넓히기

1. 일반적인 섬김

고대 사회에서는 섬김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주인과 종의 구분이 있었다. 종은 섬기는 사람이고, 주인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구분은 고대 사회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섬기는 사람과 섬김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 말이다.

아마도 대한민국 거의 모든 국민들은 ‘땅콩회항’으로 알려진 대한항공 086편 회항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2014년 12월 5일, 뉴욕 JFK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대

한항공 조현아 당시 부사장이 객실승무원의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삼아 항공기를 유턴 시킨 사건 말이다. 조 부사장은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할 것을 기장에게 요구했고, 기장은 그녀의 요구를 받아들여 항공편이 46분이나 지연되었다. 승무원은 승객으로 탑승한 부사장을 매뉴얼대로 섬겼을 뿐인데, 매뉴얼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부사장은 자기 분에 못 이겨 상황을 설명하던 사무장에게 무릎을 꿇리고 용서를 빌도록 강요했다. 이러한 사상 초유의 갑질은 대한민국을 크게 들썩였다. 그런데, 그 갑질이 어디 대항 항공 뿐일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을의 위치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섬김이라고 생각하는 듯 하다.

이와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조건없이 자신의 것을 나누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보고 공급해 주며, 옳은 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향한 친절과 섬김이 몸에 베어 있는 사람들은 희생과 섬김을 자연스럽게 실천하며 살아간다. 섬김은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능력이 많거나 적거나에 상관없이 자신의 시간과 열정과 자원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이나 공동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가? 참된 섬김을 실천해 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섬김은 타인에게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행복과 기쁨을 선사해 주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섬김은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 섬김은 타인과 자신 및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감초와도 같은 것이다.

2. 성경적인 섬김

비 그리스도인들이 섬김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성경적인 섬김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것 같다. 그 오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온전한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의 성경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가복음 10:35-45절에 기록되어 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아와 꼭 해주셨으면 하는 일이 있다고 말했다. 예



수님은 그것이 무엇인지 들어보라고 하셨다. 이에 두 제자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그들에게 최고 영광의 자리를 주셔서 하나는 주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주님 왼편에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때 예수님께서서는 ‘Yes’ 나 ‘No’로 대답하는 대신에 그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고 그것을 구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막 10:38-40).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두 가지를 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받으실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이나 예수님께서 받으실 세례는 궁극적으로 희생적 섬김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 죽기까지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을 희생적으로 섬기셨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들을 희생적으로 섬겨주셨다. 이러한 희생적 섬김이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성경적 섬김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할 ‘온전한 섬김’이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따라하도록 보여주신 온전한 섬김의 본은 또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장면에서도 명백히 볼 수 있다. 예수님 당시에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일이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의 발을 씻겨주신다고 하셨을 때 거부한 것도 그러한 통념때문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제자들의 선생 혹은 주인 정도가 아니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



나눔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요 13:3-5).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전권을 받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러한 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 예수님은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요 13:15)라고 설명해 주셨다. 제자들의 주와 선생이실 뿐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섬겨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섬김, 혹은 성경적 섬김은 종이 주인을, 없는 자가 가진 자를,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긴다는 세상적 개념과 정반대의 개념처럼 보인다. 예수님은 가진 자들에게, 강한 자들에게, 높은 자들에게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쳐 주셨다.

3. 두 가지 섬김

사람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섬김의 연결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을의 위치에서 갑을 섬기는 것이나, 댕가를 염두에 두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을 섬김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울 것이다. 을의 위치에서 갑을 섬기는 것과, 댕가를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은 섬김이라기 보다는 노동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릴 것이다.

오늘의 요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섬김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밝혀준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 10:45).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살과 피를 내어 주심으로써 섬김이 무엇인지를 명백히 보여주셨다.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곧 희생을 통해서 섬김의 본을 보여 주심으로 섬김은 노예들이



주인을 위해 하는 일이라는 틀을 깨뜨려 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리셨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이는 것이다. 두 가지 섬김 사이의 이러한 연관성과 관련하여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약 1:27).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기에, 야보고 사도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III. 생각살기

1. 주변에 자신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 간략하게 나누어 보고, 다음 만날 때까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섬겨봅시다.
2. 우리 소그룹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와 지역 사회를 섬길 수 있는 일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고 실천해 봅시다.

